

제972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3년 10월 27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신혼부부 위한 맞춤전도집회!

‘커플LOOK’ 오는 11월 25일
서빙고 본당...이재훈 목사 메시지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혼 1년차 새내기 부부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열린다. 맞춤전도집회 ‘커플LOOK’은 오는 11월 25일(월) 저녁 7시 30분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 길을 맞이한 두 사람에게 함께 걷기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과 새로운 꿈이 시작될 것이다. 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새내기 부부를 초대한다”고 전했다.

커플룩 집회는 저녁식사를 시작으로 >환영 및 주제영상 >공연 및 토크쇼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결신 및 축복 등의 순으로 꾸며진다. 게스트로

는 작곡가 주영훈, 이윤미 부부, 탤런트 윤유선, 가수 아이비, 박윤찬 재즈트리오, 한스밴드 등이 출연한다. 또한 Drawing Show, 문자 이벤트, 부부활동 시간 등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요청자모임이 오는 11월 11, 18일에 진행되며,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전도방법교육 및 행사안내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서빙고 두란노홀, 저녁 7-9시).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 들어가 배너를 클릭하거나, 주일 통합데스크, 목회지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214-3649, 3214, 010-8096-5714 맞춤전도 담당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커플 LOOK
결혼 1년차
새내기부부 맞춤전도집회

온누리 선교, 1일 오리엔테이션 OMO

11월 16일 두란노빌딩 101호, 예비 선교사 대상

예비 선교사(후보생, 관심자 등)를 위한 온누리 선교 1일 오리엔테이션(Onnuri Missiary Orientation)이 오는 11월 16일(토) 두란노빌딩 101호에서 열린다. OMO는 매년 5월, 11월 두 차례 진행되며, 온누리 선교사로서 허

입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선교 리더십과의 만남 및 상담을 통해 선교에 대한 헌신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문의: 오천병 간사(3215-3679)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다음 주일, 남양주 창립 9주년 감사예배

다음 주일(3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 창립 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린다. 감사예배는 오전 11시 30분 예배 때 진행되며, 온누리세리파합창단의 특순과 교회에서 마련한 케이크 커팅

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초창기 이재훈 목사가 담담했던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2004년 수도권 동북부 중심지에 지역 복음화를 사명으로 내걸고 문을 열었다.

/ 정지은 기자

사랑챔버 ‘희망콘서트’ 연다!

11월 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적장애인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챔버’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사랑, 꿈, 기적”의 희망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11월 6일(수)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사회는 작곡가 주영훈이 맡았으며 손인경 집사(바이올린/지휘), 박상현

지휘자 그리고 가수 양파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협연을 선보인다. 콘서트 입장권 가격은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이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에 한해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주일 안내데스크에서)

티켓문의: 010-8725-6106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확대당회

일시: 11월 2일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사역, 사무, 명예, 협동장로, 교역자

공동의회

일시: 11월 3일 3부예배 후

대상: 18세 이상 세례등록교인

장소: 서빙고 본당

자녀 위한 학부모 기도회

수능 매일기도회

일시: 10월 28일 ~ 11월 6일 (월~금), 오전 10시 30분~12시 (수요일은 예외)

장소: 서빙고 - 누리홀(월, 화, 목, 금) 꿈아이홀(수)

양재 - 비전홀b(월, 화), 화평홀(수), 온유홀(목, 금)

* 매주 수요일은 수요일 어머니기도회로 통합 진행(오전 9:15~10:30)

수능 온종일기도회

일시: 11월 7일(목), 오전 8:40 ~ 17:00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문의: 안민경 간사 02-3215-3523



주일강단



반태호 목사

삼상 6:1~12

오랜 연단과 기다림 끝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취하지 않고 추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열되었던 지파를 연합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기로 결단합니다. 여부스성을 새로 운수도로 삼아 민족통합의 구심점으로 삼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은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안정되었고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자 군사 3만 명의 소집합니다. 다윗이 군대를 소집한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언약 궤에 있습니다.

임재와 권능의 상징 법궤

다윗은 아무도 찾지도 않았던 언약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는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누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처음 법궤를 받은 벤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면 안 되는데 열었다가 희생을 당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법궤는 기랴트여림에 보관된 채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

다윗이 거의 60년 이상 잊힌 법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법궤에 대해 가진 관심은 정치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사모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기랴트여림 바알레유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법궤를 옮겨 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데 혹시나 블블레셋이 공격해 올까봐 3만 명의 무장한 군대를 모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되길 바라는 다윗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물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 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호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호가 궤 앞에서 걸어가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켈과 리와 심벌즈를 연주했습니다”(1~5절).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에 모실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성소는 성소로써, 지성소는 지성소로써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모세 때에도, 여호수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언제나 법궤가 앞서갑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이제 막 정복한 땅입니다. 이곳은 4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살았던 여부스성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소로 삼을 만한 땅이 많았는데 굳이 여부스 땅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다윗이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수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언약궤

세상의 옷을 벗으십시오.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대관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에는 화려하고 장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웃사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을 때 돌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웃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6~7절).

범국가적인 축제가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잘 가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평탄한 곳에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동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거부할 때 그 앞에 꿇어서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웃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습하려고만 했습니다.

웃사는 원래 ‘고집이 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해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웃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법궤는 절대 수레로 옮기면 안 됩니다. 수레로 옮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온전한 순종보다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에 진노하신 하나님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웃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와 궤를 모셔 올 수 있겠는가?’”(8~9절).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윗이 화를 냅니다. 다윗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기의 순수함 때문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그 열망이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친 것은 자신을 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과 실망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는 가드 오벧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법궤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드는 성소가 아닙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셨습니다.

웃사의 사건과 오벧에돔의 사건을 통해 다윗은 문제의 키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상을 옮기는 것처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라명령 합니다.

“다윗은 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14절).

아까와 달라진 모습을 보십시오. 수레에 실고 오던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던 다윗도 달라졌습니다.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베 에봇을 입고 예배자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규정을 위반해서 진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태도와 자세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예수님의 행복한 프러포즈 받으세요!

북누리공동체, 맞춤전도집회 진행



지난 19일(토)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도단 문화센터. 북누리공동체가 오랫동안 기획하고 준비한 맞춤전도집회 ‘시월의 프러포즈’가 진행되었다. 북누리 식구들은 특별새벽기도회를 비롯해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맞춤전도집회를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초청한 가족, 친지,

이웃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뜨겁게 중보했다. 박성근 장로는 “각자 다양한 은사별로 맡은 일을 분담했기에 다들 신나게, 모든 공동체 식구가 화합해서 전도집회를 준비했다. 시월의 프러포즈를 통해 초청된 분들 마음안에 말씀이 들어가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이라 확신한

다”며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연주-챔버팀 ▷영상-이재훈 담임목사 ▷웰컴영상-이홍렬, 장광 ▷웰컴송-북누리 브라더스 ▷웰컴 위십-과워키즈 ▷색소폰 연주-온누리 장로챔버 ▷특순-이진우(K-POP스타 출연) ▷웰컴영상 2-윤유선, 강석우 ▷찬양-최경렬 성가사 ▷초청자 영상 ▷메시지-행복의 프러포즈(고전 13:13) ▷결신 ▷생일 및 기념일 축하 ▷식사 및 선물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날 사회는 탤런트 이윤준 형제가 맡아 유투 있게 진행했다.

이 날 말씀을 전한 김대진 목사(북누리공동체)는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 공동체 식구가 하나되어 힘을 얻고 맞춤전도집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140여 명의 작은 공동체이고 삶이 바빠지만 물질과 정성을 모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모두가 헌신했다.”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의 프러포즈를 받아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몸은 불편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로젠요양병원. 그곳에 있는 김영우 형제는 8년 전 사고로 인해 4.5번 척추가 부러져 얼굴을 제외하고 전신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삶의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김영우 형제는 로젠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북누리 공동체 식구와의 인연으로 이날 맞춤전도집회에 참석해 은혜를 함께 나눴다. 그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제1회 안식선교사 힐링캠프’

육신과 영혼의 진정한 회복 경험



지난 10월 19~20일 진새골 이삭의집에서 ‘제1회 안식선교사 힐링캠프’가 열렸다.

아름다운 자연과 청명한 가을 날씨,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제1회 안식선교사 힐링캠프’가 지난 10월 19~20일 진

새골 이삭의집에서 열렸다. 힐링캠프는 선교사들이 현장 사역가운데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천선교본부

주관으로 열린 힐링캠프에는 한 팀(team) 이상 사역하고 안식년으로 들어온 선교사 16가정과 싱글5명, 선교사 자녀 17명 그리고 선교사 케어부원들이 참석했다.

첫날(19일)에는 웃음치료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통해 두 시간 동안 마음껏 웃으며 서로 친근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손인경 집사(사랑챔버) 간증 및 사랑챔버의 감동적인 연주를 감상하며 마음까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 주일예배(20일)에는 도육환 목사이(천선교본부)의 말씀 선포 이후 성찬식을 가졌다. 예배를 마치고 보물찾기와 한방 치료로 육신의 고단함이 치유되는 회복을 경험했다. 오후에는 온누리 연합챔버의 아름다운 연주, 가수 노사연 집사의 간증 및 찬양 등이 이어졌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제2회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개최

10월 29일 개최예배

오는 10월 29일(화)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제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KCAF(Korean Christian Art Feast) 전시’가 열린다. 개최예배는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기도 설교 내빈소개 및 인사, 테이프

커팅과 작품 감상, 만찬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는 10월 29일~ 11월 12일까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전시실 2층에서 열린다.

KCAF 2013 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전시는 ‘기독교 미술 50인 50년’을 주제로 진행된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선교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남아시아 H에 Nave 카페 오픈, 물품 후원 모집

남아시아 H국에서 Nexus사역을 하고 있는 조수아 선교사가 크리스천 카페 ‘Nave’를 오픈 준비 중이다. Nave카페는 아시아 58장 11~12절과 창세기 1장 7절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물과 동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졌다. 또한 카페를 통한 사역의 Platform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을 위한 커피 직업 및 창업 훈련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사업을 사용하고자 열게 되었다. Nave 카페에서 얻은 수익은 지역사회 환원과 지역 내 기독교 공동체의 후원 구조를 돕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Nave카페는 지역 사회에서 사역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내 아웃리치 및 사역의 참여를 홍보하는 모임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

Nave카페는 현재 남아시아 H국 C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등록을 마친 상태다.

카페오픈에 앞서, 카페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 모집하고 있다. 조수아 선교사는 “선교지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며 후원해주시는 무릎 선교사들이 있어 큰 힘이 된다. 선교사역에 함께 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던 물품 및 새로 교체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게 된 물품이 있으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재 필요한 물품은 로스팅기, 카페용 에스프레소커피머신, 냉동테이블, 냉장테이블, 제빙기, 그라인더, 쇼케이스, 오븐기 등이다.

문의: 070-8638-6455(현지), 010-2181-3522(한국: 10월 30일 이전)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크리스천 가정을 함께 세웁시다!”

대청 ‘iWe 4기’

‘나(I)’를 ‘우리(We)’로 바꾸어 주는 ‘iWe 4기’가 오는 11월 9일부터 시작된다. ‘I will walk with you’의 의미를 가지고 시작된 iWe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세워갈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으로, 대학 청년부를 섬기는 멘토들이 정성껏 지도하며 준비해온 프로그램이다.

iWe 1주차는 오는 11월 9~10일 평택 그릿사내 수련원에서 점심식사 및 자

기소개, 보물찾기, 강의, 댄스, 데이트 등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2주차가 시작되기 전 주중 데이트가 시작되며, 한 주에 두 번씩 3주간 총 6번의 만남이 랜덤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iWe 사역에 참여한 형제·자매 모두가 각각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2주차는 11월 30일 시티파크 연회장에서 주중 데이트를 한 커플들에게 질의응답, 결혼특강, 선택 전 대화시간, 선택 등을 하며 마무리된다.

/ 오은지 기자

양지캠퍼스
TP(단기선교사)모집

단기선교사 TP(Turning Point) 24기가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지난주부터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12월 15일에 접수가 마감된다.

TP는 온누리 Acts29 비전에 따라 선교지에서 1~2년간 장기선교사역자와 협력하면서 선교적 진로를 탐색하기를 원하는 예비 선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양 지

양지 대청, 새길공동체 출범

매주일 오후 1시30분, 캠벨홀



지난 10월 13일(주일) 양지 대청, 새길공동체가 캠벨홀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캠퍼스의 회복, 대학청년사역에 비전과 소망을 품은 청년들이 참석해 기도, 봉사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을 결단했다.

양지 온누리 대학청년부 '새길공동체(New Way Community)'가 지난 10월 13일(주일) 캠벨홀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새길 공동체(New Way Community)는 회복과 부흥을 향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길

(New Way)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영배 목사(양지 온누리교회)는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대학청년의 회복과 부흥이 중요한 때이기에,

청년사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양지 온누리는 몇 달 전부터 인근 캠퍼스에 전도사역을 펼치며 대학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이번에 세워진 새길공동체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와 기도, 봉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새길공동체를 담당하는 서영철 전도사는 "앞으로 새길공동체 안에 있는 대학생 및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회복과 부흥의 일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새길공동체는 매주일 오후 1시30분에 캠벨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대학생 및 재수생, 청년 등이 주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수 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림기도원에서 진행된 남누리 순연합 기도회.

이 밤, 끝까지 깨어 기도하라

남누리 순연합 산상기도회

수원 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가 산상기도회를 열었다.

지난 10월 18일(금) 오후 8시30분 경기도 광주의 광림기도원에서 '성령이여 회복과 치유를 부어주소서'를 주제로 남누리 순연합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 150명의 남누리 성도들이 참석했고, 어린이 40여 명도 함께해 기도회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반이 운영됐다.

오후 9시50분부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조동욱 목사(수원 남누리공동체 담당)의 인도로 >자신을 위한 기도(신앙 회복, 치유, 성령충만회)가 열렸고, 여섯 개의 각다락방장들의 인도로 >함께하는 기도(개인과 공동체, 순, 가족)가 이어졌다.

이날 말씀을 전한 조동욱 목사는 기도의 힘을 강조하며 "문제의 해결방법은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기도밖에 없다. 오늘 이밤에 끝까지 깨어 기도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번 산상기도회를 위해 교회에서는 2주 동안의 릴레이 금식을 진행했다. 남누리 성도들은 하루 한 끼를 금식하기로 결단했다.

산상기도회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토)에는 오전 6시30분에 믿음홀에서 산상기도회를 위한 리더십 연합기도모임이 열렸다. 이날 다락방장과 순장, 권찰, 예비순장 등 리더십 40명의 모여 산상기도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돌파(CPM) 세미나

OSOM 훈련생, 안식선교사 등 참여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돌파(CPM) 세미나가 Acts29 비전빌리지 언더우드홀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CPM(Church Pioneer Movement)은 '교회개척운동'으로 현재 장기선교사를 준비하는 OSOM 훈련생 및 안식선

교사들이 참여해 훈련받고 있다.

오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CPM 훈련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개척 >재생산하는 교회 모델링 >재생산하는 전도단계 >성경적 모델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개척 전략 등의 교회개척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오은지 기자

대 전

“힘들 때 위로해주시는 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윤복희 권사 초청 콘서트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 가사는 오늘 이시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와 등불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20일) 저녁 7시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윤복희 권사 초청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의 제목은 '여러분'. 이번 공연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전 온누리가 특별히 마련한 행사다.

콘서트는 오후 7시2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윤복희 권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7분 동안 진행되는 '여러분'을 시작으로 Amazing Grace, 내 영혼이 은총입어 등의 곡으로 뮤지컬 공연을 펼쳤다. 특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바라보는 윤복희 권사의 이야기가 담긴 공연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번 콘서트는 윤복희 권사의 어린 시절부터 성령님과 만남 등 60여 년 동안의 음악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윤복희 권사 초청 콘서트 '여러분'을 개최했다.

간이었다.

평소 윤복희 권사의 찬양을 좋아했다는 박희운 집사(유성공동체)는 "어려울 때 힘을 얻고 위로받았던 윤복희 권사님과 함께한 축복의 시간이었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극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을 만났다는 윤복희 권사의 간증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됐다는 오익환 성도(중서공동체)도 "오늘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울면서 찬양하는

권사님을 보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뇌종양으로 투병하시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김보영 성도(유성공동체)는 "전도가 힘들었는데 엄마에게 어려운 설교 듣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콘서트를 선물한 것 같다"면서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한 즐거운 데이트였다고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지난 17일 개강한 대전 대청 CDC. 임용성 목사가 첫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대전 대학청년부 CDC 개강

63명 신청, 7주간 진행

대전 대학청년부 02공동체와 빌립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과정이 지난 17일(목) 비전홀에서 개강했다.

첫 강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를 주제로 시작된 임용성 목사(대전 유성공동체)의 강의.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향한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을 되새겼다.

이번 과정에는 총 63명의 대학청년들이 신청했다. 크리스천 리더십을 함양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 대전 CDC는 7주 동안 송영동 목사(서산 온누리교회), 김철해 교수(햇살신대) 등을 강사로 초청했다.

CDC를 이수하려면 훈련과정 동안 강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기도와 경건생활 점검표 작성, 성경 암송, 도서(제자제) 읽기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정지은 기자

송파공동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주민 선교, 공동체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웃리치 받은 은혜 실천하는 '송파공동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예배공동체 섬겨

네팔 NCGC교회 '비루 목사', 네팔 헤브론교회 '라이 목사', 스리랑카 뿌약빠따야교회 찬양 리더 '타랑가', 인도 '마크 선교사'...

이들은 모두 한국 이주민 근로자였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힌두교, 불교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온누리

M미션에서 양육, 지원받아 지금은 각국에서 복음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온누리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이들은 각 나라로 역파송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현재 활발히 사역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후원이 연결되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수가 15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주민 선교는 더 이상 특수 사역이 아니다. 모두가 품어야 할 사명이 되었다. 이 사명을 품고 이주민 선교에 앞장선 공동체가 있다. 송파공동체는 지난 여름아웃리치에 책임선교사가 있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예전에 한국인 이주민 근로자였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실을 보고들은

송파공동체는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한국에 돌아와 김요성 목사(송파공동체)와 리더십이 의논해 송파 지체들과 함께 이주민 선교에 앞장서기로 결단했다.

송파 지체들은 다락방별로 나눠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서부터 그 실천을 시작했다. 지난 13일과 20일 이주민들과 함께 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예배 현장 이야기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축복의 시간, 스리랑카 예배

현지 사역 후원, 리더십 위해 중보 할 것

4개의 다락방(양선, 사랑, 소망, 충성) 40여 명의 지체들이 스리랑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온누리M센터를 방문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감동으로 지체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윤용국 목사(스리랑카예배)는 “공동체 단위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것은 처음이다”라며 “관심 가져주시고 섬겨주셔서 스리랑카 형제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예배 후에는 서로를 축복하고 조를 나눠 다과와 함께 형제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 기도제목 등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송파공동체는 스리랑카 아웃리치에서 만난 생활이 어려운 발리 형제를 위해 재정 후원을 하고 있으며, 현지 사역자인 가미니 목사의 사역활동에 힘을 살기 위해 차량 지원하고, 온누리M센터 스리랑카 예배 리더십을 각 다락방에서 입양해 지원 및 후원 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송파 지체들과 함께 스리랑카 예배를 섬길 예정이다.

■ 인/터/뷰 ■

“이주민 통해 스리랑카에도 복음 흘러가길”

한국 이주민 근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스리랑카로 돌아가 놀랍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주민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스리랑카 형제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게 돼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제가 만난 두 형제 모두 집안이 불교라서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

심을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형제들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그 나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 가지 못한 송파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힘이 되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 이광 성도



자연에서 하나 된 인도네시아 예배

선교 사역자 배출을 비전으로

인도네시아 책임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온유, 화평, 화평 다락방이 안디옥 교회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함께 남한산성 목사의 집에서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50여 명의 지체들과 35명의 인도네시아 지체들은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자연을 만끽했다. 김요성 목사는 인도네시아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백하고 하나님이 한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장렬 대표장로는 “여러분이 한국에 온 것은 국가를 위해 온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

다. 예배 후에는 도시락으로 식탁교제를 나누고, 야외에서 인도네시아 팀과 송파공동체 팀을 나눠 축구경기를 펼쳤다. 또한 이날 송파공동체 책임선교사가 그 자리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형제들과 송파 지체들은 곧 새로운 사역지로 나갈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카리스마 형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고, 섬겨주신 온누리 성도들을 통해 격려가 되었고 축복을 넘치게 받았다”고 감사를 전했다. 송파공동체는 현재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책임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안디옥 교회 인도네시아 공동체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중보 지원해 선교사로 역파송할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주민들은 미래 하나님 일꾼들”

피부색은 다르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체육활동하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목회활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함께한 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지

체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송파공동체 각 지체마다 이주민 선교에 마음을 쏟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점두 성도



2013 예수제자학교 16기 졸업식...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제자로 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올해 3월부터 시작해 26주 동안 이뤄진 JDS 예수제자학교 16기의 모든 여정이 은혜가운데 끝났다. 2013 JDS는 서빙고 양재, 수원, 인천 4개 캠퍼스 6개의 학교로 진행되었고 수료생을 포함해 394명이 졸업했다. 지난 24일(목) JDS 16기 졸업식(서빙고 주중반)이 열린 서빙고 시온홀은 가족, 친지 등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졸업예배는 예배팀의 찬양으로 시작해 ▷대표기도 ▷축하영상-이재훈 목사 ▷내빈소개 ▷말씀(요 15:12-17) ▷특수1-썸 ▷간증 ▷졸업영상 ▷격려사-반태호 목사 ▷시상-이애리 담장 ▷졸업패 수여 ▷교가, 축복송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표기도를 통해 이해

영 목사는 지난 8개월 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면서 모든 졸업생들이 앞으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날 JDS 본부장인 이훈 목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열매가 되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내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잘 전하자”면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태호 목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남아지고 실망하겠지만 그 깨어짐을 감사하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바란다.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채울 것”이라며 격려사를 전했다.

JDS 훈련 과정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전도자, 사도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인/터/뷰 / JDS를 졸업하며...

“주님안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전부 버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저와 더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주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신 곳 어디든지 나아가겠습니다.”

/ 김혜자

“어여쁘게 여겨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큐티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줄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어여쁘게 여겨주셨음을 느낍니다. JDS 과정을 통해 넘치게 받은 이 사랑을 앞으로 세상에 열심히 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 김남영

기고 / 깊어 가는 가을 영성훈련을 다녀와서

나만의 지성소에서 길을 묻다

가을아침의 쌀쌀한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산너머에 걸쳐 있는 희미한 빛을 응시하며 운동장으로 나갔다. 상쾌한 새벽공기를 들이마셨다. 머리가 맑아지고 영안이 뜨이는 것 같다.

나에게 운동장은 경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최고의 묵상자리이다. 운동장을 아무 생각 없이 돌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기 때문이다. 운동장을 뛰는데 처음에는 지나간 사역들, 만난 사람들, 분주했던 일상들이 떠올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생각으로 다른 생각들을 잠재

왔다.

아침식사를 하고 또다시 나만의 지성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햇살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운동장에서 광합성 작용을 했다. 광합성 작용은 식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도 필요하다. 특히 영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으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필수적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독소와 죄악이 은혜의 햇볕에 죽어 없어지고 새살이 돋아난다. 태양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눈을 감고 기도해보라. 금방 회복이 찾아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햇볕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은 심각했다. 예수님은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더럽고 추한 한 모습이 떠올랐다. 문제는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 하지 못했다. 결국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죄의 근원을 별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묵상의 집을 어슬렁거리면서 이슬 맺힌 아름다운 낙엽과 상처 난 나무들의 가지들을 보았다. 신기한 것은 나무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 성장과정을 볼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나라는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균형 있게 자라고

있는가?’, ‘뿌리 채 흔들리지 않았는가?’ 열매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나뭇잎을 보며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큰소리치셨다.

“모두 내가 만든 것이고 내 숨씨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새롭게 보였다. 나무, 꽃, 산과 하늘, 바람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신비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것이 묵상의 집 ‘묵상의 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 허원희 목사



재미있는 한국교회사 1

강력한 회심의 역사를

부흥과 회개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하기 때문이다. 회개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면에는 개인과 공동체 혹은 민족 전체의 철저한 회개와 통회의 역사가 있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이 외치신 첫 말씀도 “회개하라”였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오순절 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통회했다.

2000년의 기독교사에서도 회개는 끊임없이 강조됐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리처드 벡스터는 그의 저서 《회심》에서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고 외쳤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 역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다. 개인과 공동체가 회개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평양대부흥운동 이전의 회개 운동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뚜렷한 회개가 나타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다. 1901년 초 회개의 역사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다.

1903년 1월 30일(음력 정월 초하루),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송도, 즉 오늘날의 개성 지역에서 임했다. 크램(Cram) 목사의 인도로 신년 기도회가 열렸을 때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다. 구정 첫날 송도 지역의 이장포교회에서 30여 명이 낮에 전도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는 장단읍교회에서 20여 명이 전도 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 집회는 다음날 개성 북부의 한 교회당에서 계속됐다. 이때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공동체에 임했다.

그해 여름 하디의 회개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원산 부흥 운동이 발흥했다. 하디는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기도회 기간 중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만, 강박한 심령, 부족한 믿음” 등 자신의 죄악을 낱알이 털어놓으며 눈물로 회개했다. 하디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로한 것이다. 이것은 그 자신의 말대로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 다음 주일 하디는 또다시 원산감리교 회중 앞에서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교만, 심령의 강박함, 믿음의 결핍 그리고 이것들이 가져다준 많은 결과를 고백했다.

하디의 죄 고백은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촉발하는 동인이 됐고 선교사들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놀라운 회개 운동 가운데 들어갔다. 하디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동료 선교사들과 특히 한

국인들을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운 것이다. 성령께서는 하디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개 운동을 이끌어갔다.

1904년 2월 26일부터 10일간 개성남부교회당에서 하디가 인도한 개성 지방 연합 사경회에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울었고, 과거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 배상했으며 숨겨왔던 죄를 고백했다. 회개의 역사는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고 “배재학당에 다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주께서 권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셨다. 설교자 몇 사람을 포함해 많은 선교회 사람들이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상당히 갈등한 후 공개 집회에서 일어나 분명한 태도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로 가족들을 대하지 않았음을 회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를 미워했음을, 또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았음을 회개했다. 그 밖에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죄목들을 비롯한 특별한 죄들을 무엇이나 다 깊이 회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을 사로잡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심하게 울부짖었다. 나는 이 부흥회에서 목격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회개하는 백성을 본국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다.

감리교 선교사 모리스는 1905년 6월 “이 부흥회는 우리 교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었다. 나는 당시 내가 목도한 것보다 더 깊은 죄에 대한 각성을 본 적이 없으며 우리 교회는 이후 여러 방향에서 영구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북감리교 연례 모임에서 보고했다. 한민족이 위기를 만나고 있던 그때 놀라운 회개 운동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강력한 바람이었다. 불안한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수많은 의식 있는 젊은 이들도 성령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승만, 이원규,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안국선, 이승인, 신흥우 등 “양반 가문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에 따른 열매를 맺었다.” 1906년 4월 크램은 자신이 목도한 회개의 역사를 이렇게 집약했다.

많은 기독교인이 내면에 숨겨진 죄를 회개한다. 참된 죄의 회개와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이뤄진다. ... 나 자신이 모국에서 목도한 것만큼이나 죄의 확신이 깊고 회



▲ 평양 장대현교회 앞에서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선교사, 길선주 목사, 이길함(Graham Lee)선교사가 나란히 서 있다(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심이 분명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디로 말미암아 축발된 성령의 역사가 원산, 개성, 평양, 서울로 이어지더니 1906년 10월 저 멀리 목포에서도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프레스턴은 이렇게 보고했다. “성령께서 저다인(Gerdine)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의를 논증하심으로써 절제, 죄성의 심판, 죄 사함의 필요성, 죽음 같은 정적이 모두에게 임했으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외과용 수술 칼처럼 사람의 심령을 깊이 찌개어 은밀한 죄악들과 영혼의 숨겨진 암세포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는 그것들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다. 그런 후 죄의 고백이 수십 명의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임해 힘 있는 남자들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평양대부흥운동과 회개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목포에서는 성령의 임재에 의한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은

그 같은 은혜가 평양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1907년 1월 14-15일 장대현교회의 평양대부흥운동에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때 임한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사람은 고백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건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집회는 중단 없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됐다. 집회 내내 소름 끼치는 일련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혹은 깊게 감춰져 있던 모든 죄들이 고백됐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는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처한 것처럼 갑자기 격렬하게 통회하고 애통해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호흡 곤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자기 가슴을 치기도 했다.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어져 몹시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바닥을 손으로 연타하기도 했다.

일으킨 ‘평양대부흥운동’



▲ 1907년 1월 2-15일 남자 사경회가 열린 평양 장대현 교회.

◀ 이길함 선교사의 가정



현장에 있던 블레어 선교사는 훗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결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집회가 시작됐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그날 밤 공개적으로 고백됐다. 사람들은 창백한 표정으로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심신이 괴로운 가운데 백보좌 앞에서 있는 죄악된 심령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서로를 바라봤다.”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서 자기 내면에 숨겨진 죄악들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인위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신 성령의 역사에 의한 고백이었다. 세계의 어느 부흥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평양대부흥운동에서도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죄 고백은 공동체의 죄 고백으로 이어졌다.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레이엄 리는 어느 젊은이의 회개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는 한 인간 마음의 모습을 봤다. 그는 간음,

중오, 아내에 대한 애정 결핍 등 여러 죄들을 고백했다. 기도하면서 그는 흐느껴 울었고 그가 자신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껴 울자 청중도 함께 흐느꼈다. 우리 모두는 마치 살아 계신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다. 존스(George Heber Jones)가 기록한 대로 “이 같은 종류의 회개 장면이 매일 반복됐다.” 얼마 뒤인 1907년 2월 10일 주일, 평양 남산현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회개 역사가 재연된 것이다. 사도행전 오순절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평양에 임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교파와 교단의 벽을 넘어 확산됐다. 평양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직접 목도한 감리교 선교사 노블(W.A. Noble)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 주심의 현상이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 시

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까지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거나 혹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탄식하며 집에서 온 밤을 지새웠다.

강력한 회개의 역사는 평양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지방에서 일어난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목도한 어느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했다. “회개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임하자 남자, 여자, 어린이가 모두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한 심령이 되어 부르짖었으며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죄로 인한 애타는 투쟁과 몸부림과 절규를 내는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다.”

성령의 바람, 회개의 바람이 평양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더니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곳 회중 가운데 죄의 확산, 의의 확산 그리고 다기를 심판을 확신시키셨다.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때때로 죄 고백 때문에 예배 전체를 중단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어져서는 어떤 육중 고문도 이처럼 괴롭지 않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이다.

영적 각성에서 사회 개혁으로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기간 동안 나타난 회개의 역사와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그 같은 성령의 회개 역사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1903년 원산부흥운동이나 평양대부흥운동 모두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는 사경회 가운데 임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조나단 에드워즈로 대변되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역시 말씀을 축매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둘째는 철저한 죄의 고백이 단순히 일회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의 각성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 이것이 결국 사회 각성과 개혁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북감리교 선교회 감독 해리스가 1908년 볼티모어에서 열린 북감리교 총회에서 보고한 것처럼 한국에는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부흥 운동의 영향은 매우 훌륭했다. 즉 교회의 신앙 수준이 높아지고 자상(仔細)한 성경 교육 덕분에 광신(狂信)은 거의 없었으며 정신 이상과 같은 사건도 하나 없었다.

수천 명의 신도가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성직의 소명을 받아들였고

그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려고 무려 2000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한 장소에서 거행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이했으며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압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수천 명의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난 대부분의 부흥 운동처럼 한국의 대부흥 운동 역시 영적 각성이 사회 개혁과 변혁으로 이어졌다.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의 특징은 회개였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한국 교회는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는 1900년 초 영적 각성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때부터 일관되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다. 하디와 장대현교회에 임한 성령의 회개의 역사는 공개적인 죄의 고백을 특징으로 했다. 이 같은 공개적인 죄 고백은 어느 누구에 의해 유도돼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자 사람들은 자신이 숨겨왔던 죄악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과 공동체의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다.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 더 나아가 사회 개혁과 변혁으로 이어졌다. 회개가 단순히 죄에 대한 지적 동의를 넘어 죄에 대한 통회와 죄로부터의 단절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다. 감사하게도 평양대부흥운동 당시 회개는 보상이 철저하게 따랐고 회개에 따른 변화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시됐다. 그 결과 세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던 평양, 기생의 도시,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변혁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 같은 회개의 역사는 성경과 사도행전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의 생명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이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20세기 초 한반도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다. 우리 모두 개인과 사회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주시길 간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

/ 박용규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 〈목회와 신학〉 10월호에 실린 글을 전재했습니다.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5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 신학, 교사론, 기독교 교육 등 온누리교회 교사들은 차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고된 교육과 훈련과정을 받아야 했다. 사진은 1990년 여름 고등부 여름성경학교.

▶ 일대일 제자양육은 '교사와 제자'가 아니라 영적 유언을 나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강조한다.

▶▶ 초창기에는 예배시간에 각자가 큐티한 내용을 나누었다. 점차 성도가 많아져 오후 큐티 모임이 예배로 대체되었고, 이는 큐티 나눔을 위한 '큐티나눔방'으로 재탄생했다.



▲순예배는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순예배를 인도하는 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순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났고 현재는 순장사관학교가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7년 된 교인은 떠나라.” 이것은 온누리 성도라면 누구나 아는 말이다. 이 ‘7년’과 ‘떠남’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온누리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는데 7년이 걸리고, 이 훈련을 다 마친 성도는 남아 있지 말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다. 당연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섬기게 되었다.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그렸던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보다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다.’ 이 말들은 온누리교회의 양육 체계를 잘 설명해 준다.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탄생한 것이 큐티(말씀 묵상)와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127점 모임 때부터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이 두 양육 체계는, ‘떠남’이라는 온누리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 변화되는 통로가 큐티라면, 일대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서로 변화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하 목사는 교회 초기부터 일대일을 강조했는데, 이는 일대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즉, 양육자가 성경과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 영적 유산을 나누는 부모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일대일은 온누리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는 큰 힘이 되었다.

큐티와 일대일은 평신도가 주인공이다. 온누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 전국, 세계 각처로 흩어져 헌신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큐티와 일대일이라는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순,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순’이다. ‘순’이란 문자적으로 줄기가 될 작은 싹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공부와 교제 등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5일 창립되기 전부터 ‘순’을 가장 작은 단위로 삼아 교회를 준비했고, 그 순이 지금까지 온누리교회의 핵심 개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순을 포함하는 상위 단위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을까. 온누리교회도 창립 당시에는 여느 장로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역’ 조직으로 성도들을 배치했다. 그런데 1985년 이후, 교회는 교구 개념을 도입, ‘순(구역교구)’의 형태로 구성했다. 여러 순을 묶어 운용해 오던 ‘구역’은 1992년에 ‘다락방’으로 그 이름이 바뀐다. 이에 따라 교회는 새롭게 ‘순(다락방교구)’의 모습을 갖춘다.

1998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온누리교회는 성도 1만 명 시대를 맞았다. 94년 성령사역을 선포한 이후, 온누리교회는 평신도 사역의 비중을 더욱 강화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좇아가는 ‘아래로부터의 목회’를 견지해 오던 중이었다. 97년에는 ‘아래로부터의 목회’ 측면에서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 ‘공

동체’ 개념은 ‘지역 교회’를 말한다. 이후 목회는 지역 교회에 해당하는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된다.

각 공동체를 맡은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를 중심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리더십들의 책임이 훨씬 커졌다.

담당 장로는 공동체에 속한 다락방을 담당 목사들과 함께 돌보며 운영하는 한편, 공동체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여 각 공동체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했다. 공동체의 사역들을 격려하고 점검하며, 공동체 내의 경조사를 담당하는 것도 담당 장로 몫이었다. 권사는 각 공동체 안에서 권사회를 구성하고 목회자의 심방을 돕는 역할을 했다. 또 경조사에 참여하고 공동체 내의 여성 리더십(권장 혹은 집사)과 함께 기도회 힘써야 했다. 이 모든 것이 평신도가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목회’ 개념 차원에서 적극 추진된 것이며, 이때 갖춰진 ‘순(다락방공동체)’의 형태와 내용은 상당 부분 지금까지 그 골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부흥기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신도 사역이 날로 번창하자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역할이 다양해졌다. 그것은 맞춤 목회의 시작이었다. 예를 들어 영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제들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성도를 위한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다.

탈북민을 위한 한터공동체, 33~44세 청년을 위한 브릿지33+공동체,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

를 위한 15세공동체 등이 그 대표적 예다.

또한 온누리교회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선교’에도 공동체가 발 벗고 나섰다. 1999년 도입된 공동체 책임 선교사 제도를 위해 업그레이드 새롭게 발표했다. 업그레이드된 공동체 책임 선교사 제도의 골자는 ▷선교 사케어 강화 ▷공동체 선교 영상 확대 ▷공동체 내 다양한 선교 동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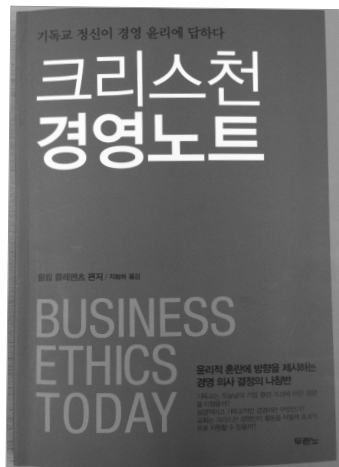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학교 교육

1985년 교회 창립 때부터 온누리교회는 주일 학교 학생들을 위해 헌신의 힘을 쏟았다.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등 다양한 성인 양육 과정이 있었지만 훈련 과정이 가장 길었던 것은 교사 교육이었다.

차세대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름사역이다. 차세대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부모교육, 교사교육 등을 한데 묶어 열방의 교사, 부모, 차세대에게 전수하는 교사강습회와 영역별 캠프가 주인공이다.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를 표방하며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수요일어머니기도회, 새 학기 종일 기도모임, 이외에도 어머니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와이즈마더링(Wise Mothering) 등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매년 겨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청소년이 되겠다는 거룩한 비전선포의 장 ‘패션(Passion)집회도 차세대대를 대표하는 주요사역이다. 패션의 또 다른 이름은 세상 문화를 선도하는 크리스천 문화축제다.

크리스천 경영노트

필립 클레멘츠 편저 | 지범하 옮김
| 두란노 | 375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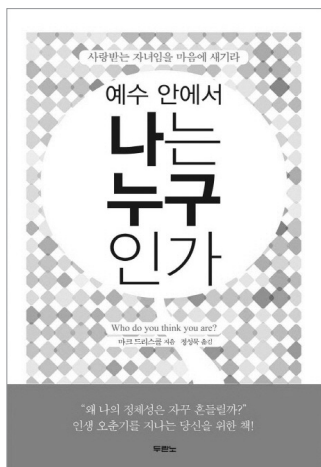


‘성경적인 경영윤리란 무엇인가.’ 이 책은 크리스천 경영인들에게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지침과 새로운 도전을 준다. 책은 크리스천 경영 윤리의 답을 찾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외에 다수의 고

전을 소개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사업현장에서 만나는 크리스천 경영 윤리를 다룸으로써 윤리적 원칙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함께 제시한다. 책은 한시적으로 서빙고와 양재 두란노 서점에서만 판매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는 크리스천 CEO포럼(02-570-7094)으로 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마크 드리스콜 지음 | 정성묵 옮김
| 두란노 | 332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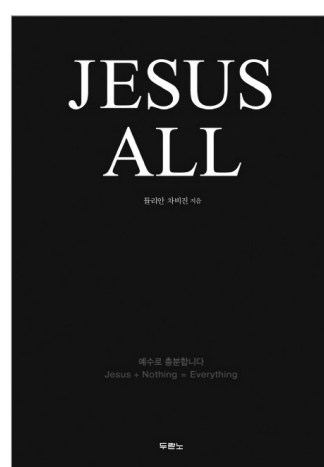


미국의 주목받는 차세대 목회자 마크 드리스콜 목사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펴낸 책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나 한번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죽은 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저자는 정체성 위상 숭배 현상 및 정체성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정체성 고민의 유일한 해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한다.

JESUS ALL

톨리안 차비진 지음 | 정성묵 옮김
| 두란노 | 260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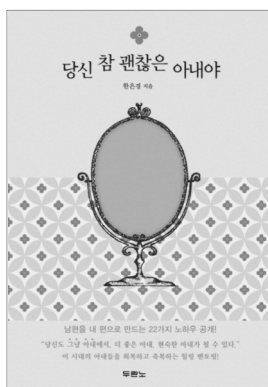


빌리 그레이엄 외 손자이자 미국의 주목받는 차세대 목회자 톨리안 차비진의 신앙 고백서. 저자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복음의 빛 앞에 산산조각 났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이외에 많은 것을 더하려고 했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한다. 자신

이 얼마나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연연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복음의 빛 앞에서야 세상의 초라함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복음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Nothing 인생’에 찾아오신 ‘Everything 예수’를 고백하는 책이다.

당신 참 관찰은 아내야

한은경 지음 | 두란노
| 228쪽 | 10,000원



오늘날 가정이 위기에 처해있다. 지혜로운 아내는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된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 경험담과 어머니학교 본부장으로서 겪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헨리 클라우드 지음 | 김애정 옮김
| 토기장이 | 304쪽 | 12,000원



변명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일과 사랑, 관계 등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영역에서 ‘책임지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영성과 함께 느리게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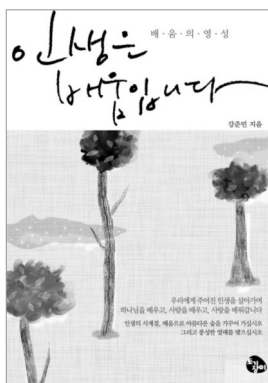
김대식 지음 | 토기장이
| 192쪽 | 10,000원



삶에 지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크리스천들에게 35인의 영성가들이 순수한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는 영성가들의 고백에 마음을 열고 마음이 멈추는 글이 있다면 그 글귀를 깨워 묵상하라고 권면한다.

인생은 배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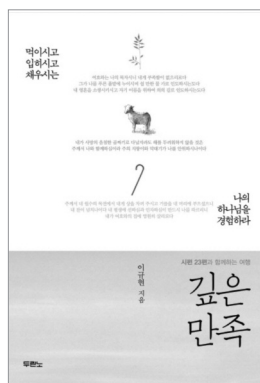
강준민 지음 | 토기장이
| 232쪽 | 11,000원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기를 도전한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며 살아간다. 저자는 배움의 자세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깊은 만족

이규현 지음 | 두란노
| 384쪽 | 14,000원



릴 수 있다.

다윗의 신앙고백인 시편 23편으로 다윗의 행적을 따라 그 신앙을 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시편 23편은 짧은 시이지만 신앙의 굽직한 주제들이 다루어져있다. 깊게 묵상함으로써 인생의 로드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누

생명의 떡 오직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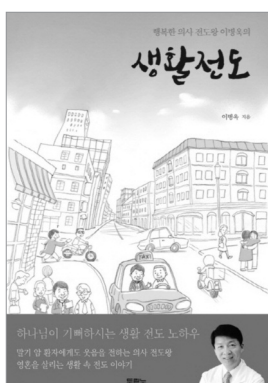
김범곤 지음 | 두란노
| 240쪽 | 10,000원



서울역 노숙인들의 아버지라 불리고 스스로 마당쇠를 자처하는 김범곤 목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가 전한 ‘오직 예수’ 메시지는 ‘생명의 떡’으로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는 전도와 구호 사역이야기는 ‘마당쇠 이야기’로 엮였다.

행복한 의사 전도왕 이병욱의 생활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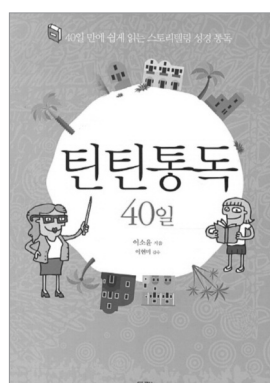
이병욱 지음 | 두란노
| 256쪽 | 11,000원



“누구나 생활전도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영혼을 살리는 의사 전도왕 이병욱 박사의 생활 속 전도 이야기를 담았다. 일터에서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병욱 박사의 간증을 담은 이 책은 전도에 대한 도전과 따뜻한 용기를 북돋아준다.

틴틴 통독 40일

이소윤 지음 | 두란노
| 340쪽 | 20,000원



청소년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경 속 사건과 인물을 생생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해설했다. 1주일에 5일씩 총 8주 동안 40일 만에 성경의 맥을 잡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게 하소서”

구순 재미 원로목사 CGNTV에 후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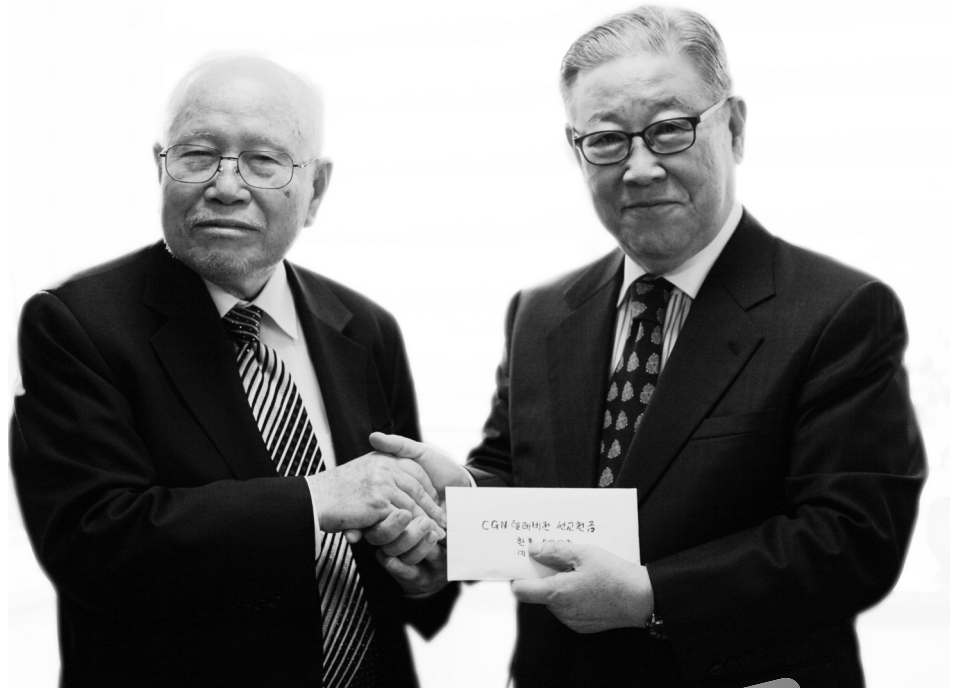
“저는 하용조 목사의 제자입니다. 하 목사는 세계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셨죠. CGNTV에서 접한 하 목사의 설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제가 평생 견지해온 설교방식이었습니다.”

구순의 재미(在美) 노목회자 한은우 목사가 지난 24일 CGNTV를 찾아 심상치 않은 말을 건넸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로 다른 목회자를 감동케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 아니다. 구순의 목사가 직접 대화를 한 적도 없는 후배 목회자를 스승이라고까지 하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목사는 “CGNTV가 하 목사의 설교를 더 많이 전 세계와 나눠주기를 바란다”며 “하 목사의 설교에 영감을 받아 최근 고국에서 구순 회고록 ‘예수의 사랑, 아! 예수의 사랑’과 설교집 ‘십자가의 도(상, 하) 등 3권을 출간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그 고마움을 표하

기 위해 겨자씨선교회 제자들과 함께 CGNTV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겨자씨선교회는 2010년 한 목사의 목회적 영성과 비전을 계승하기를 바라는 제자(목회자)들이 장학 사업 등을 하기 위해 결성한 것

한 목사는 ‘강화 교동섬의 걸어다니는 사도행전’으로 불렸다. 1989년 서울동산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국내 20개, 해외 6개 교회를 세우는 등 복음 전파를 위해 평생을 보냈다. 1981년 도미, 나성동산교회를 개척한 그는 한 평생, 집 한 채 개인이름으로 가져보지 않았다. 은퇴 후 목회자 사택과 은퇴금 조차 교회에 바치고 가진 재산 모두를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젊은 시절 폐결핵 47까지 갔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죠. 하 목사도 폐결핵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어요. 하 목사는 오직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강단에서 부르짖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은 닮은 점이 참 많아요.”



한 목사를 수행하고 CGNTV를 방문한 겨자씨선교회의 최홍욱(서부동산교회) 최대용(서부중앙교회) 박용배(강화벤엘교회) 박승원(충민교회) 목사는 얼마 전 선교회에 들어온 미화 5000달러, 한화 500만원을 한 목사의 제안에 따라 이날 유재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들 목회자는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있는 영혼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CGNTV의 사역가치와 순수성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목사 일행은 CGNTV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다. “CGNTV가 가는 곳마다 많은 심령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소서.”



화제의 프로그램 -힐링유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주어진 환경에 눈을 감고 목표에 눈을 뜨니 안 되던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 4개월고등학교 과정은 3개월 만에 졸업했어요. 내진감에 일반수시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만 15살 최연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가슴으로 낳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스케치북에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을 써서 가르쳐줬어요.

“어차피 커서들을 말이라면 너의 가슴속에 굳은살이 있는 게 좋아. 미리 연습한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약이 될 것이고 연습하지 않으면 독이 될거야. 그러니 귀에 약을 바르고 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고 서기까지 흘린 눈물

제가 건고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엄마는 좋은 휠체어 하나 사달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가장 비싸고 예쁜 신발을 하나 사셨대요.

“이 신발 신고 반드시 걷게 해줄 거야”

그날부터 피눈물 나는 재활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트를 깔고 매일 연습을 했어요. 일어

로봇다리 세진이의 내일

나고 넘어지기를 6개월 정도 하니까 잘 걷는 방법과 넘어지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독한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걸음마를 함께 해주셨어요.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뎠는데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첫 걸음이었어요. 처음 수영대회에 나갔을 때 완주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 했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갔는데 상어가 보이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엄을 쳤어요. 그 덕분에 완주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제 오른손에 나팔을 쥐어주셨어요.

“세진이 힘들면 언제든지 이 나팔 불어. 내가 달려갈게”

세상이 기대하는 어른 되는 꿈

엄마는 저를 물에 던지셨어요. 재활운동으로 수영만큼 좋은 운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물을 질색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를 물에 던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수영을 했는지 몰라요. 수영을 하면 물에 몸을 맡기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

어 좋아요.

지난 9월 17일에 미국 뉴욕에서 10km 원형 종목에 출전했어요. 전체 280명의 선수 중 21위, 18세 이하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어요. 최연소이고 장애인 최초로 나가는 시합이라 두렵고 떨렸지만 잘해낸 것 같아 기뻐요. 저는 IOC위원이 되어서 제가 가는 곳마다 태극기가 걸려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제가 해외 시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땀어요. 저는 당연히 애국가가 나오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시상식을 떠올렸는데, 애국가가 나오지 않고 태극기도 없었어요. 몹시 당황하고 있는데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아서 스케치북에 그린 태극기를 올리면서 애국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세상을 기대하는 아이가 아닌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자’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CGN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Onnuri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커플 ♥

결혼1년차
새내기부부 맞춤전도집회

LOOK

2013.11.25(월) 7:30 PM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게스트 주영훈 이윤미 부부, 탤런트 윤유선, 가수 아이비,
곽윤찬 재즈트리오, 한스밴드, 성우 서혜정

접 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배너 클릭 후 신청
주일 통합데스크, 목회지원실

문 의 담당간사 010-8096-5714, 02-3215-3649, 3214



주영훈 부부

윤유선

아이비

곽윤찬
재즈트리오

한스밴드

서혜정